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연말 온라인 소비 8.4% 증가 예상
- Reuters: 올해 하반기 시즌에 '선구매 후지불' 지출 사상 최대 예상

[미국 금융]

- Bloomberg: 금리 추가 인하 예상되면서 2년물 국채 올해 최저치 근접
- Bloomberg: 미 주택 모기지율 다시 감소... 채용자 붐
- CNNBusiness: 금값 또다시 사상 최고치

[미국 대선]

- NYT: 트럼프의 '자국에 낮은 세금, 외국산에 높은 관세'는 현실과 충돌 가능성
- WSJ: 해리스 오늘 경제 정책 비전 제시 예정

[오일]

- CNBC: OPEC, 장기 석유 수요 성장에 매우 낙관적

[인공지능]

- CNBC: 급증한 AI 수요, 칩 부족 초래할 수 있어

[글로벌 경제]

- WSJ: 인플레이션 완화되면서 세계 경제 회복세
- Bloomberg: ADB "아시아 성장하고, 중국은 디플레이션으로 가격 약세"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Bloomberg: 구글, 클라우드 독점 혐의로 마이크로소프트 고발
- Bloomberg: 사우스웨스트 항공, 손실 막기 위해 애틀랜타편 대폭 축소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Online Holiday Spending Projected to Rise 8.4%, Most Since 2021
연말 온라인 소비 8.4% 증가 예상

- Adobe에 따르면 11월과 12월 미국 소비자들의 온라인 소비가 2,408억 달러로 예상된다. 높은 할인 판매와 완화된 인플레이션 덕분이다. 이는 작년 홀리데이 시즌보다 8.4% 증가한 수치이며, 2021년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 이러한 예측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으로의 전환을 보여준다.
-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소비자들은 저렴한 옵션을 찾고 있다. 홀리데이 시즌 최대 30% 할인 혜택은 소비자들의 전자제품, 가전제품, 스포츠용품 구매를 유도한다. 국내 소매업체는 물론, Temu, Shein, TikTok 같은 해외 소매업체들이 경쟁에 참여하면서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
- 또한 소비자들은 ChatGPT 같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구글과 아마존의 광고를 피하고 있다. Adobe에 따르면 소비자 5명 중 1명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최적의 상품을 찾아낸다.

Bloomberg 기사

Reuters: US holiday spending on buy now, pay later to hit record due to debt-laden shoppers 올해 하반기 시즌에 '선구매 후지불' 지출 사상 최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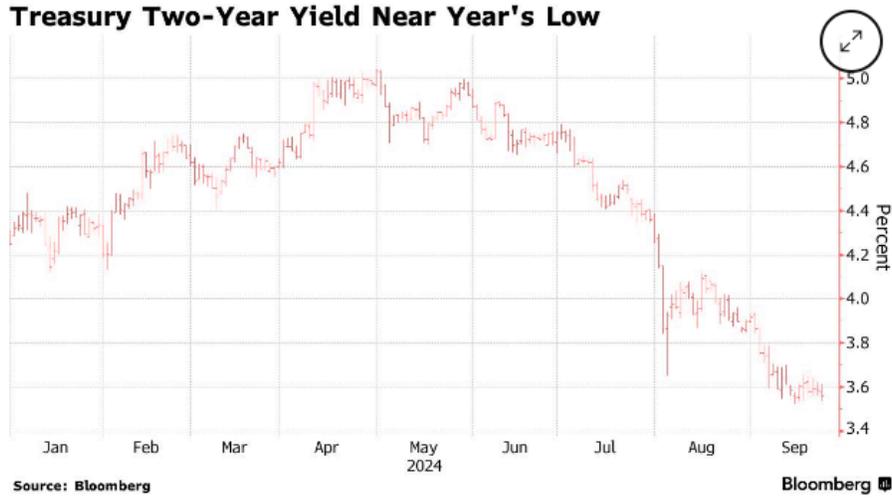
- 올해 하반기 홀리데이 시즌(11월과 12월)에 미 소비자들의 '선구매 후지불' 서비스(BNPL) 지출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오늘 수요일 데이터 회사인 Adobe Analytics가 밝혔다. 금액으로는 185억달러로 당초 예상 지출보다 8.4% 증가한 수치다.
- 많은 미국인들이 부채가 늘어난다는 의미인데, 이 같은 지출 방식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4% 상승했다.
- 이 구매 방식은 제품을 구입한 후에 36개월까지 매달 갚아야 할 수도 있다.

Reuters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US Two-Year Yield Near 2024 Lows as Rate-Cut Bets Rise 금리 추가 인하 예상되면서 2년물 국채 올해 최저치 근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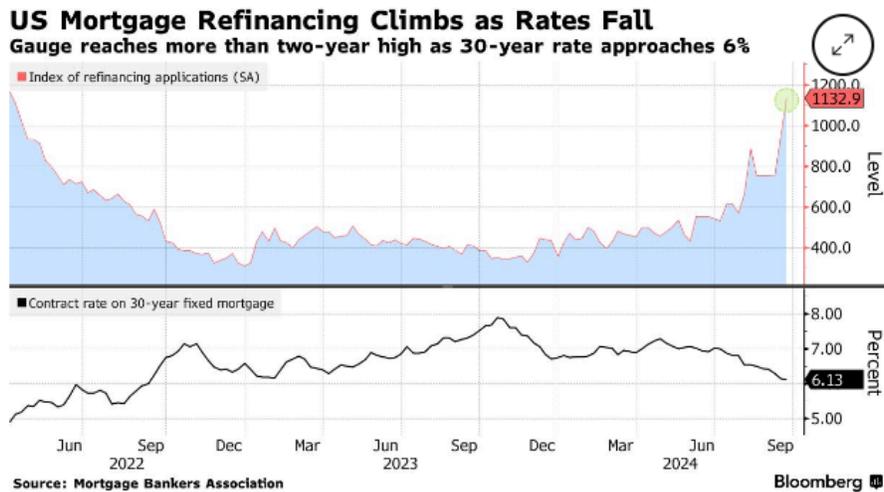
- 연준이 0.5% 금리 인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 미 소비자신뢰지수도 감소한 후인 오늘 화요일, 2년물 미 국채 금리가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치에 근접하고 있다.
- 2년물 국채의 경매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는 떨어졌다. 690억 규모의 매각에서 예상 금리는 3.520%로 지난 2022년 8월 이래 2년물 경매에서 가장 낮았다. 경매를 제외한 올해 가장 낮은 2년물 금리는 9월 16일 기록한 3.524%였다. 금리는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현재 2년물 금리는 3.543%, 10년물은 3.77%에 거래되고 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US Mortgage Rates Fall Again, Triggering Big Wave of Refinancing
미 주택 모기지율 다시 감소... 재융자 붐

- 금리 인하로 미국인들이 보다 낮은 차입 비용을 얻게 되면서 2주 연속 모기지 재융자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 오늘 수요일 모기지 은행협회의 재융자 지수는 9월 20일 끝나는 주에 20.3% 증가해 지난 2022년 4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 30년 모기지율은 2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한 6.13%로 8주 연속 감소중이며 지난 2018년 이래 가장 긴 기간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 당연히 주택 구매 지수도 지난주에 1.4% 상승해 지난 2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Bloomberg 기사

CNNBusiness: Gold's hitting new records again. Here's what it means for the economy

금값 또다시 사상 최고치

- 금 선물 계약이 올해 가장 높은 가격을 경신하고 있다. 오늘 화요일 오전에 온스당 2,689.00에서 거래 중이다. 연준이 지난주에 금리를 0.5% 인하한 후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 전통적으로 안전 자산으로 간주되고 있는 금은 올해만 해도 30% 가까이 상승해 S&P 500의 올해 20% 상승을 능가하고 있다.
- 이 같은 금값 상승은 연준의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중국, 터키, 인도 등 여러 국가들의 중앙은행이 달러로부터 자산을 다원화하기 위해 금을 구매하는 수요 상승도 한몫했다.
- 또한 일부 투자자들은 금값 급등은 시장이 여전히 미국 경제를 불안하게 보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CNNBusiness 기사

[미국 대선]

NYT: Trump's Low-Tax, High-Tariff Strategy Could Clash With Economic Realities

트럼프의 '자국에 낮은 세금, 외국산에 높은 관세'는 현실과 충돌 가능성

- 트럼프 후보는 미국에서 제품이 만들어질 경우 (본사가 외국에 있다 하더라도) 현행 21%에서 15%로 낮춘 법인세를 부과할 것이고, 멕시코 등 외국에서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에게는 최대 200%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 그가 대통령일 때 관세가 높았는데, 미국 기업의 해외 이전을 막으려는 그의 노력은 해외의 값싼 노동력과 기술 발전의 현실과 충돌했다. 그의 재임 시기 제조업 고용은 팬데믹 이전에는 변동이 없었으며, 퇴임 이후 하락했다. 2021년 1월 미 제조업 단체(AAM)은 그의 약속은 주로 '말 잔치'라고 언급했다.
- 트럼프 제조업 강화 정책은 바이든의 산업 정책과 유사한 면이 있다. 바이든은 반도체, 청정 에너지, 전기 자동차에 대규모 지원금을 투자했다.
- 또한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관세 조치는 멕시코 투자를 확대했다. 회사들이 미 관세를 피하려는 목적이었다. 트럼프는 멕시코에서 차량 등을 생산해 미국에 수출 시 최소 100% 관세 부과할 것이라고 톤을 낮췄다.

NYT 기사

WSJ: Harris to Outline Economic Vision to Counter Trump's

해리스 오늘 경제 정책 비전 제시 예정

- 트럼프와 해리스는 대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미국 경제에 대한 비전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 해리스는 오늘 수요일 전통적인 산업 제도의 중심인 피츠버그에서 자신의 미 경제에 대한 비전과 이를 위한 향후 조치들을 설명할 예정이다. 해리스는 자신의 자본주의자로서 정부의 간섭을 제한하고 이데올로기에 의해 지배되는 경제 정책이 아닌, 실용주의적인 접근이 경제 철학이라는 점을 내세울 것이라고 해리스 측은 밝혔다.
- 트럼프는 이미 어제 '새로운 미국 산업주의'를 주창하며 법인세 감소 및 중국에 대한 대규모 관세 부과 시행을 약속했다.

WSJ 기사

[오일]

CNBC: OPEC is highly bullish on long-term oil demand growth. Not everyone agrees OPEC, 장기 석유 수요 성장에 매우 낙관적

- 브렌트유가 9월 초 배럴당 7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33개월 만에 최저치다. 소비자들에겐 좋은 소식이지만 OPEC+에겐 나쁜 소식이다.
- OPEC은 가격 안정을 위해 생산 증가를 두 달 더 연기하기로 했지만, 별로 효과가 없어 보인다. 낮은 글로벌 수요 예측과 비OPEC 국가에서의 새로운 석유 공급 때문에 유가는 오랜 기간 낮게 유지될 것이다.
- 하지만 OPEC은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24%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9년에는 석유 수요가 2023년보다 하루 1천10만 배럴 증가한 1억1천230만 배럴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OPEC의 예측에 동의하지 않았다. IEA는 향후 10년간 석유 수요가 하루 약 1억6백만 배럴로 고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CNBC 기사

[에너지]

CNBC: Surging AI demand could cause the world's next chip shortage, report says 급증한 AI 수요, 칩 부족 초래할 수 있어

- 컨설팅 업체 Bain & Company에 따르면 인공지능 반도체와 스마트폰, 노트북 수요가 급증해 글로벌 칩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팬데믹 당시

공급망이 중단되고 재택근무로 인한 가전제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반도체 부족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다.

- Bain & Company 미주 지역 기술 부서 책임자 Anne Hoecker은 “그래픽 처리 장치(GPU) 수요가 급증하면서 반도체 가치 사슬(value chain)의 특정 요소가 부족해졌다. 여기에 AI 지원 장치의 확산이 결합하면, 제품 교체 주기가 빨라지면서 반도체 공급에 더 많은 제약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 Bain & Company는 약 20% 이상의 수요 증가는 균형을 깨트리고 칩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지정학적 요인도 칩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 반도체가 국가의 전략 기술로 간주되면서 미국은 중국이 최첨단 칩에 접근할 수 없도록 수출 제한을 걸었다. Bain & Company는 중국으로부터의 공급망 분리는 반도체 공급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CNBC 기사

[글로벌 경제]

WSJ: World Economy on Track for Slight Pickup as Inflation Is Tamed 인플레 완화되면서 세계 경제 회복세

- OECD는 금리 하락과 실질 임금 회복은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며, 유가 하락은 인플레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세계 생산량은 작년 3.1% 성장했고, 올해는 3.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말 당시 2.7% 성장 예측과 올해 5월 3.1% 성장 예측보다 늘어났다.
- OECD는 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불만은 팬데믹 이전보다 너무 많이 증가한 식료품 가격과 관련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2019년 말부터 올해 2분기까지 식료품 가격과 임금 간의 인플레 격차는 약 4%p였다. 독일에서는 15%p가 넘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선 20%p가 넘었다.
- 유가 하락은 이러한 불만을 누그러뜨리고 인플레 완화에 도움이 된다. OECD는 7월 이후 10%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전 세계 인플레이율이 0.5%p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 또한 OECD는 물가 상승이 계속 둔화될 수 있도록 중앙은행이 신중하게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OECD는 2025년 말까지 미 연준 기준금리는 1.5%p 인하, 유럽중앙은행 기준금리 1.25%p 인하할 것으로 예측했다.

WSJ 기사

Bloomberg: ADB Sees Higher Asia Growth, Weaker Prices on China's Deflation ADB “아시아 성장하고, 중국은 디플레이션으로 가격 약세”

-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에 따르면 중국의 성장 둔화로 올해 아시아 경제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확장하고, 인플레도 예

상보다 더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 기술 및 반도체에 대한 글로벌 수요로 아시아 개발도상국 성장률이 올해 5%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4월 4.9% 성장률 예측보다 올라간 수치다. 중국을 제외한 지역의 성장률은 5.1%로 보인다. 인플레이는 중국의 수요와 가격 약세로 인해 2.8%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Bloomberg: Google Accuses Microsoft of Abusing Dominance in Cloud 구글, 클라우드 독점 혐의로 마이크로소프트 고발

-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시장을 둘러싼 법적 갈등이 가열고 있다. 구글은 유럽연합 반독점 감시기관에 마이크로소프트를 고소했다.
- Alphabet은 마이크로소프트의 Azure 클라우드 서비스 라이선스 약관이 구글과 아마존을 비롯한 경쟁 플랫폼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독점이 유럽연합 시민들을 보안 위험과 IT 장애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유럽 클라우드 업체들이 제기한 비슷한 우려들을 우호적으로 해결했다. 구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라고 말했다. 규제 당국은 표준 절차에 따라 독점 여부를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Southwest Airlines Slashes Atlanta Flights to Stem Losses 사우스웨스트 항공, 손실 막기 위해 애틀랜타편 대폭 축소

-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손실을 보는 노선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일환으로 애틀랜타 항공편의 거의 3분의 1을 줄였다. 이는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압력 때문에 운행 노선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 매주 이 도시에서 출발 또는 도착한 항공편은 예전에 567편이었으나 4월 현재 381편으로 줄었다. 이 항공사는 애틀랜타에서 출발해 다른 도시 37개로 그동안 운행했으나 도착 도시를 21개로 줄였다. 이에 따라 3백명 이상의 조종사와 승무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Bloomberg 기사

[보고서]

금리 인하에 얼어붙었던 美 상업용 부동산에 온기...바닥 다지나 블룸버그 "매수·매도자 합의 가능한 가격 찾는 데 시간 걸릴 수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빅컷'(0.5%포인트 금리인하)으로 통화정책 기조 전환에 나서면서, 고금리 장기화로 얼어붙었던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도 온기가 돌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면서 "매수·매도자들은 시장이 바닥에 이르고 있다고 점점 확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준은 2022년 초 0.25%였던 기준금리 상단을 지난해 7월 22년 만에 최고인 5.5%까지 끌어올렸고, 이에 따라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